傳記출판에 관하여

崔鍾庫
서울대 법대 교수 · 法史學

위싱턴의 여름은 올해 유난히 더웠다. 더위를 피할 겸 국회도서관에 들렀다가 흥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하였다. 이 책은 미국의 傳記家로 유명한 작가 ·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토론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었다. 취지인즉은 傳記가 수 없이 쏟아져나오고 출판과 독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작 전기를 쓰는 사람들끼리 의견교환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전기의 서술과 출판에 관한 방법, 대상, 기술 등이 광범하게 논의되었다.

미국의 서점에 들어서면 아마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의 하나가 傳記섹션으로 보인다. 학자, 예술가, 사업가, 연예인 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기가 하루에도 몇종씩 신간으로 진열되는 것같다. 대법원 판사 정도가 되면 한사람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전기가 나오고, 특히 올해같은 선거의 해에는 정치인들의 전기와 자서전, 회고록 등이 풍년을 이룬다. 이런 政治傳記의 量産에 대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지나고보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책일지 모르나 선거전에는 어쨌든 유용하니까 그렇게 많이 출판된다고 하겠다. 영화배우나 성공한 사업가들의 책도 눈이 현란할 정도로 화려하게 출판되고 있다.

이런 전기출판의 행태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의 질을 느끼게 된다. 역시 미국은 異質的 대중사회요, 그 속에서 성공한 자는 대중의 영웅으로 부각되어 바로 전기나 자서전으로 연결된다. 또 스케일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인물을 파악하려면 전기같은 인물연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거기서도 전기류는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학자나 사상가, 예술가같은 인물들의 전기가 많고, 책의 형식 자체가 미국책보다는 진중하게 보여서 그런지 전기물도 그렇게 야단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것같다. 미국보다는 좀더 전통적이고 静的인 사회요 문화패턴임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아다시피 傳記와 自敍傳에 대하여 비교적 인색한 전통을 갖고 있다. 자기의 삶을 공개하는 것이 이익은 될 수 없었던 역사도 그러했거니와, 남의 삶을 서술할 만한 여유와 인간존중의 분위기도 희박했다. 行狀이니 年譜니 自述이니 하는 전통적 傳記術은 아무리 보아도 빈약했던 것같다. 그것은 우리의 학문방법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도그마틱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있는 그대로를 서술(deseribe)하는 기록이 부족 했던 것이다.

상황은 바뀌어, 우리나라에도 근년에 많은 전기와 인물연구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여유가 생기고, 역사와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의 범람 속에 자칫하면 변질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재벌의 미화된 전기, 과장된 논픽션 내지 르뽀식의 전기들은 오히려 인물과 역사를 왜곡시킨다. 이것이 주는 해악은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사람은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전기를 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칭「한국傳記學會」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傳記學은 문학과 학술의 종합형태로 독특한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기를 써본 사람들이 모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적 傳記文化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출판저널
1988년 9월 20일 제27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초점 18 활력 넘치는 중국의 출판계
— 제 2 회 北京국제도서박람회 스케치
출판문화의 새로운 광맥/鄭鎭肅
세미나 2 월북작가 저작권, 어찌할 것인가
유족의 의견—불법출판 규제해야/金明烈
공청회 3 "출판법을 보호육성법으로"
출판화제 4 출판에도 '교육민주화' 열기
5 '초등교육 현장'에의 새로운 접근—玄岩社
6 가까이 다가드는 소련 현대문학
17 '사전의 명문' 발돋움하는 金星출판사
화제작의 주변 7 처음 소개되는 밀란 쿤데라의 작품세계
서평 8 崔在錫「韓國農村社會變動研究」— 金大煥
安輝濬「韓國絵画의 伝統」— 朴容淑
9 한상진「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姜珉
黃仁寬「中立化統一論」— 金煉喆
10 박현채「민족경제와 민중운동」—尹邵榮
盧吉明「가톨릭과 朝鮮後期 社會變動」— 趙珖
11 미래학회「미래를 묻는다」外 —劉載天
정연희「뿔」— 金鍾會
신간抄 12 역사의 '현장성' 담긴 古文書의 세계
13 '대쪽 성품의 선비정치인'의 전모「芸斎選集」
세계의 추천도서 14 20세기 국제정치사상의 大家들 /李重漢
작품구상 15 장편「勲章」/高元政
서점가 스케치 16 서점 매장이 넓어지고 있다
전문출판사 17 "사진의 위대함을 책으로 말한다"—「해뜸」
지금 독서중 20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소설가 朴泰洵씨
吳相洛의「消費者—그 문제와 보호」— 교사 張明實씨
21 현기영의「順伊삼촌」—「가나아트」편집주간 김용태씨
문예진흥원「예술경영」—중앙국립극장 李眞淑씨
22 金達鎭의「현대韓國禪詩」—「현대시학」주간 鄭鎭圭씨
김종대의「독일희곡이론사」— 교사 表英善씨
23 朴榮漢의 연작소설「왕릉一家」—쌍용양회 李民浩씨
지금 제작중 23「文化財大觀」일어판 · 영문판 전 8 권—大學堂
컬러 24 경제학자 邊衡尹 교수의 書架
교양논단 26 지배문화 규범에 도전하는 '해체이론'/金聖坤
저작구상 27「신문·출판의 컴퓨터 이용」/이기성
세계의 출판 28 황금기 맞은 카리브문학 · 外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
40 理工도서 코너
42 實用書 코너— 가정의례 · 茶생활
43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48 독서퍼즐/정기구독 안내

표지 사진/구본창